

# 美하원 군사위원장 대북 강경파 선출

### 로저스 “中北 위협 억제”

### 외교 등 한반도 관련 상임위원장 대중 강경 공화당으로 ‘물갈이’ 외교 매콜·정보위원장 터너

하원의장 선출이 늦어져 지난 7일(현지시간) 지각 출범한 제118대 미국 의회가 금주부터 상임 위원회로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한국의 국회와 달리 미국에서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차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계속 다수당을 차지하는 상임 위원회 달리 다수당이 바뀐 하원에서는 공화당 소속의 새로운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속속 결정되고 있다. 상임위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상임위 활동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따라 위원장이 바뀐 하원 상임위에선 제117대 의회 때 운영과는 구별되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하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직간접으로 다루는 상임위의 위원장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의원(앨라배마)은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군사위 위원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의원은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미국)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이들 위협을 억제하고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군이 파괴력과 역량(강화)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2년간 하원 군사위는 우리 전사들에게 세계 어디서 그 어떤 적이든 억제하고 필요하면 격퇴할 자원과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사위는 국방부가 핵심 임무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 바이든 행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사회적 의제와 관련됐지만, 국가안보에 기여하지 않는 조치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로저스 의원이 언급한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는 지금은 폐지된 군 장비의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등이 포함된다.

군사위는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담은 연례 국방수권법을 포함해 국방 관련 법과 각종 프로그램, 기관 업무를 소관하는 상임위로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 등 현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2002년 처음 하원의원에 당선된 로저스 의원은 지역구인 동부 앨라배마에 에니스톤 육군 부기고에 있고 인접한 조지아주에 있는 포트 베닝 기지 근무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군에 관심을 뒤었다.

2020~2022년 공화당 간사를 맡는 등 군사위에서 오래 활동했으며 2019년 군사위의 전략군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우주군 창설에 큰 역할을 했다.

한미관계 등 외교문제를 다루는 하원 외교위원회에는 지난 의회에서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지낸 마이클 매콜 의원(텍사스)이 내정됐다.

그는 9선 의원으로 대(對)중국 매파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과 북한 등의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려면 한국 등 동맹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함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등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이다.

그는 작년 11월 두 차례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을 지원하고 김정은을 힘의 우위에서 다루는 새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며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문했다.

정보위원장에는 공화당 소속 부위원장을 지낸 마이크 터너(오하이오) 의원이 내정됐다.

변호사 출신으로 오하이오주 데이턴 시장을 지낸 터너 의원은 2002년에 하원에 당선돼 군사위 등에서 활동했다.

그는 중국, 북한 등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제출한 올해 국방 예산안이 미국을 약하게 만든다며 로저스 의원 등과 함께 증액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서 버스로 이동하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대선결과에 복복해 지난 8일 의회, 대통령궁, 대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벌이다가 체포된 400여명 중 일부다. /연합뉴스

## 브라질 법원, 前대통령 최측근 체포영장 발부

### 대선불복 폭동 사태 관련

지난 8일(현지시간) 발생한 브라질 대선불복 폭동 사태와 관련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최측근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10일 AFP-로이터통신과 브라질 TV 글로벌 방송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리 지 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은 이날 보우소나루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안데르송 토레스 전 브라질리아 연방 판구(특구) 안보 장관에 대해 검찰에서 청구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토레스 전 장관이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의 폭동 조정을 미리 인지하고도 방관했거나, 몰랐더라도 느슨한 치안 관리로 폭동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토레스 전 장관은 지난 8일 대통령궁과 의회, 대법원이 시위대에 의해 폭탄으로 변할 당시 보우

소나루 전 대통령이 머무는 미국 올랜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브라질리아 연방 경찰은 시위대에 너무 무기력하게 뚫렸는데, 휴일임을 고려해도 눈에 보일 정도로 커다란 치안 공백이 있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그는 폭동 사태 당일 곧바로 면직됐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토레스 전 장관 자택을 방문했으나, 그는 여전히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고 브라질 매체 글로벌 뉴스 보도했다.

다만, 토레스 전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항상 윤리와 합법성을 바탕으로 행동했다. 진실은 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썼다.

검찰은 체포영장과는 별개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자산동결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이 때문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역시 이미 수사 대상에 들어간 것이냐는 관측도 나왔다.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지원’ ‘뱅크시’ 작품

### 러, 온라인 판매 해킹 공격

우크라이나인들을 돕기 위해 세계적 그래피티 작가 뱅크시가 제작한 작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려던 국제 자선단체 홈페이지가 러시아 해커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쟁 피해 민간인을 지원하는 국제 자선단체인 ‘전쟁의 유산’(Legacy of War) 재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현재(구매희망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곧(나찰받는데) 성공한 신청자들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만 건이 넘는(구매) 신청과 함께 러시아 IP 주소로부터 약 3500건의 적대적 공격을 받았다. 그런 만큼 지금은 기다려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뱅크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10개월 넘게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한정판 판화 50점을 제작, 이 재단을 통해 판매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해당 판화에는 ‘FRAGILE’(취급 주의)이라고 새겨진 종이박스 위를 기어오르던 흰색 쥐 한 마리가 발톱 자국을 남기면서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전쟁의 유산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 신청을 받은 뒤 50명을 최종 선정해 작품 한 점당 5000 파운드(약 750만원)에 판매하고,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현지 구호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딸과 프란치스코 교황 알현하는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왼쪽)가 딸과 함께 10일(현지시간) 바티칸 사도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알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계은행 올 세계성장률 3.0%→1.7% 하향

세계은행(WB)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투자 감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6월 보고서에서 전망한 3.0%보다 1.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경기침체를 겪은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선진국 경제의 95%, 신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의 거의 70% 대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보다 낮췄다.

특히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 2.5%에서 올해 0.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이 정도 수준

의 성장 둔화는 세계 경기침체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취약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이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그 어떤 새로운 악조건이 세계 경제를 침체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1.9%포인트 낮게 0.5%로 하향했다.

유로존의 경우에도 1.9%포인트 하향하면서 성장률이 정체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2.7%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4.3% 성장률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외부 수요 약화를 반영해 작년 6월보다 0.9%포인트 낮췄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 경제와 개도국의 성장률은 작년 3.8%에서 올해 2.7%로 둔화할 것으로 봤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 튼튼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